

목어

왜 '이 멋진 세상'을...

살아있는 물고기를 수출할 때 같은 물탱크 안에 그 물고기의 천천한 마리를 잡아넣기도 한다. 천적의 도전을 받음으로써 물고기들은 필사적이 되어 쉽게 기진하지 않고 생명을 보다 연장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자살 동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런 도전에 주목한다. 전쟁이나 전염병, 경제위기의 시대를 살아 대한 '도전'으로 본다. 이럴 때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살아 남으며 애쓰지 죽으려 하지 않는다. 조사 결과로도 이 같은 고난의 시기에 자살율은 줄어들고 우울증 등 정신병 환자도 예상 밖의 감소율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극복되고 나면 자살율이나 정신질환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평화롭고 살기 좋은 시대를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는 것인가. 통계적으로도 후진국에 비해 선진국의 자살율이 한결 높다. 그뿐 아니라 계절적으로도 가을이나 암울한 겨울에 비해 생명이 약동하는 봄철에 자살율이 높다 한다. 학자들의 이 같은 분석은 평소 우리들의 생각을 갱신한다.

70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한국의 자살율이 이제 OECD국가 가운데 5위라 한다. IMF 이후의 생활고 자살 외에도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중심으로 별의별 이유의 자살이 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살을 증가로 한국도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 할 것인지. 인터넷에서 자살 이야기를 나누다 처음 만난 젊은 남녀가 함께 극약을 나누어 먹고 나란히 누워 저승길로 떠났다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소식도 전한다.

자유로운 인간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며, 지혜는 생명에 관한 명상에서 나오는 것이라던가. 불교는 지혜와 자유와 깨침의 종교다. 부이 암스트롱이 들려주는 '이 멋진 세상(What a wonderful world)' 이라도 한번 들어 보라. 거기 깨침의 세계 하나가 열려있다. 이 좋은 봄날.

김정자(연문인·본지 논설위원)

산사 오염주범 '억울'

사찰 오수처리시설 현황과 과제

주말 계곡수 오염수치 평일 3배 사찰-정부-지자체 '공동의 숙제'

지난해 말 조계종 총무원에 <사찰 오수처리시설 현황조사 보고서>를 통해 "사찰 오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오수처리 현황은 사실상 총체적 부실의 상황"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오수특성 조사 및 부하에 대한 정확한 검토없이 일률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향과 함께, 부실한 시공 및 관리가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공원내 사찰 33곳에 대한 오수처리 실태조사 결과, 일부 사찰의 오수 시설로 유입되는 물 오염도가 공장 폐수 배출 허용 기준치(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80-100mg/L)와 맞먹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계곡 수질오염은 국립공원 공중화장실(전체 451개중 오수처리시설 미설

치 143개)과 사찰화장실(303개중 239개 오수처리시설 미설치), 숙박 및 음식점 화장실(2056개중 1186개 오수처리시설 미설치) 가운데 상당수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흘러 보내 악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질오염 방지 안된다"

환경부가 이번에 사찰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과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도 계곡수의 수질오염을 더 이상 방지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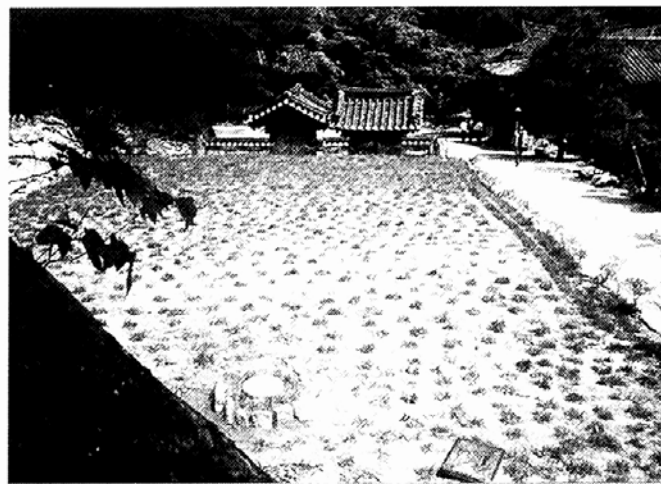
그러나 조계종의 분석 자료에는 사찰이 국립공원 수계의 주요 오염원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조사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사 대상 사찰 평균 관관객 수가 4800여 명에 달하는 평일의 경우 BOD가

27.01mg/L에 불과했으나, 1만9700여 명으로 집계된 주말의 BOD는 평일의 두 배에 달하는 47.98mg/L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적처럼 국립공원이나 산사 유역의 오염원이 사찰이라는 것은 사실과 상당부분 다르다는 분석결과다. 사찰이 국립공원 오염의 주범이라면서 내놓은 공공기관의 자료는 산사 주변을 정확히 실측하지 않고 인근 지역의 자료를 토대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 동안 정확한 조사 자료가 없어 '산사의 대부분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산사유역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환경부의 보고가 국정감사의 도마위에까지 오를 정도였지만, 조계종은 국립공원내 주요 사찰의 50% 가량이 정상적으로 오수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이번에 정부 국고지원을 이끌어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인 이병인 일광대 교수(환경공학)는 "사찰로 유입되는 지표수의 상태는 평일보다는 관광객이 많은 주말에 오염 수치가 2~3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사찰의 오수처리가 사찰만의 문제가 아닌



토우건설이 시공한 송광사의 오수처리시설. 지하에 매설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뤘다.

사회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임을 일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자연친화적 시설 도입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사찰 오수처리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계기로 △중단차원 지침 마련 △사찰오수 특성에 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및 협조 △사찰특성에 맞는 시설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사찰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설정 △전통 해수소 등 자연친화적 시설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개별 사찰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교육 등을 통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책임

있는 관리, 지자체와의 협력 및 지원 확보 등의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찰오수 문제의 해결은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와 예산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오수처리 시설 설치대상 미만의 소규모 사찰에 대해서는 처리시설 설치명령 등의 법적 조치가 곤란하고, 예산지원도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국고지원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사찰측에만 수질오염의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 (gkim@buddhania.com)

위계 확립·자질향상 '기대'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 발족 의미

승랍 10년이하 교육의무화 15만거 성만해야 대덕롭게

12일 발족한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는 통합종단 출범 이후 40년 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일반 스님들에 대한 교육 체계와 그에 따른 승려 자질 향상, 승려 위계의 확립 방안을 마련해 승단질서의 새로운 장을 열 논의의 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승가 교육제도가 구체화되면 전문·특수 일반 교육 관련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고, 승려 현황 파악 및 그에 따른 체계적인 인적 관리도 가능해지는 기대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매년 4급승가고시를 거쳐 300여명의 스님이 구족계를 수지하고 있지만 조계종단의 9개 전문 특수 재교육 기관 재학생은 50명에 불과하며, 승랍 10년 이하의 스님 중 내전(안거포함)과 외전 등의 수행 및 교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30%이내에 불과한 것으로 교육원 조사 결과 밝혀져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또 기존 스님들의 경우도 95년부터 매년 1년 개최되는 본·말사 주지연수가 전무인 상황에서 승려 재교육 부재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교계 안팎에서 지적되어 왔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승가 교육역량의 시행은 전문 영역별 교육과 수행력을 갖춘 도제를 양성하는 효과가 크다. 승가 교육제도가 시행되면 구족계를 수지한 승랍 10년 이하의 스

님들은 개인 특성에 따라 전문 특수 일반 교육기관 등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선방의 경우 10만거를 성만해야 말사 주지와 교역직 종무원 소임을 볼 수 있는 3급 승가고시 응시 및 4급 중덕법계 품수 자격이 부여된다.

2급의 경우도 3급고시에 합격한 스님 중 승랍 15년 이상으로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선원에서 15만거를 성만할 경우 2급승가고시 응시와 대덕 법계 품수 자격이 주어진다. 대덕 법계를 품수 해야만 중앙종무기관 부장, 본사 주지, 종회의원, 각위원회 위원, 강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중앙종무기관 원장 급인 1급 종사 이상부터는 고시절차 없이 고시위원회의 제청과 종회의 결의에 의해 종정의 재가로 법계를 품수한다.

승가고시와 법계제도 시행의 골자는 일정 정도의 교육과 수행을 동반해야만 그에 맞는 법계가 품수되고, 종단 소임이나 교구 본사 등 주요 사찰 소임을 맡게 될 때 일정 자격을 갖춘 스님이 등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승가고시 응시자격인 마련 및 법계제도의 시행이 승가의 계급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행과 교육, 덕행, 법랍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내부 화합과 법계에 따른 스님의 대외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원이 원장 공석의 상태에서도 승가교육진흥위 발족을 강행한 것은 도제 양성의 한 획을 그었던 행자교육원이 공식적으로 개원돼 제 1기가 배출된 지 올해로 만 10년을 경과하고 있고, 95년 예비승 제도 시행 후 첫 출가자들이 99년부터 구족계를 수지하고 있는 등 기본교육제도가 완결된 만큼 종단 차원의 승려 일반에 대한 전문·특수·재교육을 실시할 시점에 와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원우 기자

인리법 승가교육진흥위원장 법장 스님

"승가 재교육 미래불사"



"승가 재교육의 틀을 만드는 일은 종단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원로스님들과 종도들의 뜻을 모아 승가교육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2일 출범한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 진흥위원장으로 선출된 법장스님(수덕사 주지)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승가가 미래사회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승가상 확립을 목표로 재교육의 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통합종단이 출범한 지 40년차를 경과하는 시점에서 승가교육위가 출범한 것은 종단사적이나 승가 교육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스님들의 자질 향상과 승가 위계를 바로잡기 위한 승가고시 및 법계

제도 시행, 주제별 연수 등 재교육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여 단계적인 시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승가 교육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 종도들이 관심을 갖고, 기탄 없는 의견제시와 공감대 형성에 아낌없는 참여 바란다"고 종도들에게 당부했다.

법장스님은 현재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 회장, 덕숭총림수덕사 주지,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nia.com)

불기 2545(2001)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 안내

주요행사일정

Table with 5 columns: 행사명, 일시, 장소, 집행처, 비고. Lists various Buddhist events like 'Buddhist Law', 'Buddhist Culture', etc.

경축 기념 행사

Table with 5 columns: 행사명, 일시, 장소, 집행처, 비고. Lists commemorative events like 'Nirvana Memorial Service', 'Buddhist Culture', etc.

경축 기념 행사

Table with 5 columns: 행사명, 일시, 장소, 집행처, 비고. Lists commemorative events like 'Samsara and Karma', 'Buddhist Culture', etc.

자비의 손길

Table with 5 columns: 행사명, 일시, 장소, 집행처, 비고. Lists events like 'Buddhist Welfare', 'Buddhist Culture', etc.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 ☎(02)725-6641